

8/29/21

설교 제목: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13 장 1-22 절

(출 1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 13: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출 13:4)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출 13:5)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출 13:6)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출 13:7)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출 13: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출 13: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 13:10)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출 13:11)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출 13:12)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출 13:13)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출 13:14)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새

(출 13:15) 그 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출 13:16)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출 13: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출 13: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출 13:19)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 13:20)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출 13: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 13: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본장은 구속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은 모두 당신 것이니 거룩히 구별하여 당신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출1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출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본절에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13:12, 22:29, 34:19), 민수기 (3:11-13, 40-45, 18:16-18, 18:15-18), 신명기(15:19) 에서도 계속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이 당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13:11)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출13:12)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구속(대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애굽의 장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게 하여 죽음을 면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태생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며 거룩히 구별하여 당신께 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사탄)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탄의 소유였던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케 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즉 장자를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출13:13)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출13:14)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새

(출13:15) 그 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출13:16)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뜬금없이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대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속함을 얻지 못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나귀처럼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나귀처럼 대속함을 얻지 못하면 그 목을 꺾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귀를 통해서 계시된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장자라고 하십니다.

(출 4: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요, 구속(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애굽의 초태생 곧 장자를 심판하신 것이 애굽 전체를 심판하신 것임과 같이 여기에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진리는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즉 장자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고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후 5: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전 6:19)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전 6:20)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인인지라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출13: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출13:4)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출13:5)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출13:6)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출13:7)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출13: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출13: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출13:10)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앞서 명하신 바 열나흘날 저녁은 유월절로 지키고 이어서 이십 일일 저녁까지 칠일을 무교절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12:18)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이십 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은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은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되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잊지 않도록 가르쳐 계승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교절은 은혜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절기를 함께 지키라고 하신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절기는 따로 떼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절기를 함께 지키게 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유월절)을 받아 당신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한 삶(무교절)을 살라고 하시며 나아가 미래에 유월절 양의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유월절)되고 성화(무교절)된 당신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나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출 33:3)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고센 땅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숙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칩니다.

(출12: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이요

(출13:20)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출13: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13: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도를 보면 이 코스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과하여 가사에 이르는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방향을 동쪽으로 돌려서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한 까닭이었습니다.

(출 13: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뿐만 아니라 홍해 도하를 통해서 세례를 계시하시고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사를 막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만 천하에 알리려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름길, 빠르고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돌아가는 길로, 때로는 암초를 만나는 험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 모세는 여기서 갑자기 요셉의 유언에 따라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온 것을 언급합니다.

(출 13: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출 13:19)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것을 이곳에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붙잡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견디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 46: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그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를 창성케 하셨고 때가 차매 경륜 가운데 그들 앞에 앞장 서서 그들을 인도하여 올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은 영원히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여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견인으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430 년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야로 진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견인하여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값을 내고 사신(구속)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셔서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거룩한 것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와 견인의 감격에 겨워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